

<글말교실 소감문>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시스템공학부 안광민입니다. 2021년 2학기에 이민영 교수님의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면서 교수님께서 공지사항에 올리신 글을 보고 글말교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수업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막막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글말교실의 일대일 글쓰기 코칭을 신청하였습니다. 보고서 초고를 작성할 때 이 글의 주제가 적절한지, 문단 구성이 적절한지, 올바른 자료를 사용하였는지와 같은 수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글쓰기 코칭에서 이민영 교수님께서서는 저의 초고를 보시고 굉장히 세세히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초고에서 여러가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커지고 어떤 식으로 줄여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메인으로 작성할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의 초고의 주제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었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주제로는 글의 뚜렷한 나의 주장이 들어가기 힘들고 너무 흔한 이야기의 글이 쓰일 수 있고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이므로 2번과 3번 문단을 중점적으로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한국 공교육에 관해서 작성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코칭 이후로 저는 EBS와 사설 인터넷 강의에 대한 문제점과 개혁으로 주제를 심화하여 나만의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각종 자료를 참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쓰기 수업 시간에 배운 각주와 참고문헌처럼 양식에 관련된 세세한 사항까지도 다시 질문을 하면 자세하고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료조사를 충분히 잘하였으니 너의 생각만 정리하면 되고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저를 북돋아주고 재미있는 글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과거의 저에게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던 것을 글로 일목요연하게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나타내는 글쓰기가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글말 교실로 인하여 글쓰기를 할 때는 문단과 문단의 유기성과 같은 점을 파악하는 것과 같은 글을 쓰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배우고 난 후 약간의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사람의 글을 볼 때도 그들의 글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넓은 안목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보고서와 같은 것을 쓰는 일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는 글쓰기 수업으로 인해 글말교실을 접한 것과 같이 다른 학생들도 글이나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글쓰기 코칭을 받아 글쓰기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대한 강연, 글말 특강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 들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글말 특강을 듣지 않을 것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학 후에는 글말 특강을 수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 글을 써보니 조금 더 잘 써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글을 쓰는 경험을 하고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한 코칭을 한다면 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글말교실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양대학 교수님들과 저의 글쓰기를 담당해주신 이민영 교수님 감사합니다.